



အေးအေးအေးအေး၊ အေးအေးအေးအေး!

RaonAttē 13<sup>th</sup> MYANMAR YANGON

အေးအေးအေးအေး အေးအေးအေးအေး



## | contents |

### Raonatti Activity

힐랑따야

쉐빼따

먀 오꼴라바

양곤YMCA

아띠클럽

### Inside 라온아띠

① 하루일과

② 산드라 조카 결혼식

③ 솔리's 생일

④ 애린's 생일

⑤ 싱가포르 메디컬 팀을 만나다!

⑥ 엑스포에서 만난 사람들

### 부록

버터씨의 버터시

정선생의 쓱쓱 미얀마어

### 다섯의 이야기 Es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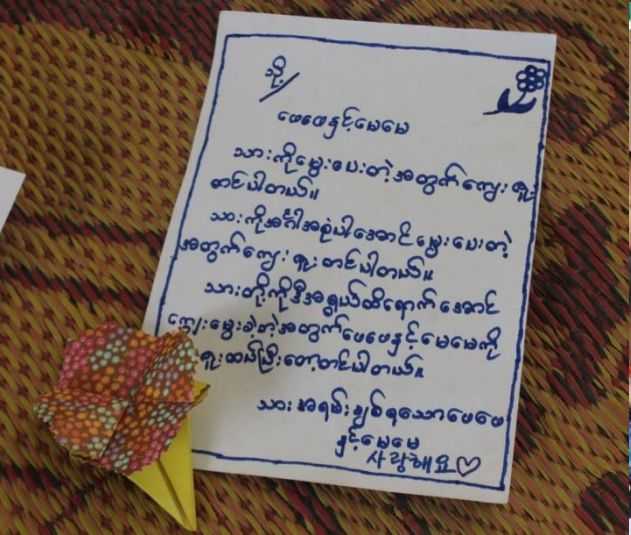
## MAY. 2015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노동절	2 개미소동 Atti Club	3
4 국기 색칠 (미얀마, 한국)	5 카네이션 접기 Atti School	6 모자이크	7 Atti School (카네이션)	8 카네이션 접기	9 Atti Club	10 세꼬랑& 스노우팩토리
11 울챙이 접기	12 개구리 색칠	13 페이스페인팅	14 모자이크	15 양곤Y 첫 날 페이스페인팅	16 Atti Club	17 Thai 47
18	19 페이스페인팅	20 과일 색칠	21 Atti School 페이스페인팅	22 모자이크	23 결혼식 Atti Club (Korea Expo)	24 애린생웜♥
25 과일 색칠	26 Atti School (풍선아트)	27 아가들마시부	28 딱지치기 싱가폴팀만남	29 과일 색칠	30 미얀마어 수업 AttiClub 산드라 미팅	31



**RAONATTI ACTIVITY 01**

# | Hlaingthayar |



## 5월의 활동

- 넬서리 - 국기(미얀마&한국) 색칠하기
- 카네이션 접기
- 올챙이 접기
- 개구리 색칠하기
- 페이스페인팅
- 모자이크(거북이, 나비, 고래)

- 아띠스쿨 - 어버이날 표현 익히기
- 카네이션 접고 부모님께 편지 쓰기
- 거북이 모자이크
- 페이스페인팅
- 풍선아트 및 동물 단어 익히기

## 개인 피드백

**애린 :** 넬서리 아이들이 손을 쓰는 활동에 제법 익숙해져 가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노래도 크게 크게 따라 부르고, 몇몇 아이들은 다른 활동을 할 때에도 흥얼거린다.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간식을 가져오지 않은 아이가 다른 아이가 바닥에 흘린 과자를 집어먹는 것을 보았다. 태규와 다른 아이들은 정신 없이 꼬리잡기를 하며 뛰어 놀고 있는데, 그 여자 아이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집어 먹었다. 둘러보니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이 꽤 많았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내게 준 간식을 나누어 주곤 했는데 왜 간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인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띠스쿨은 활동방향이나 목적, 시간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 같다. 개학 이후 수요가 정확하지 않아 걱정이다.



**선진 :** 널서리에 새로 들어 온 아이들도 있고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어 아이들 수가 들쭉날쭉한 한 달이었다. 게다가 우기가 시작되고 시원해지면 미술 활동 뿐 아니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계속되는 더위 때문에 여전히 미술활동에 치중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2층은 심각하게 어두워졌다. 자체적으로 조명 보수를 할 순 없는 건지...

아티스쿨은 방문하는 아이들이 매번 달라 한국어 교육보다는 이벤트성 활동이 많았다. 어버이날, 모자이크,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를 하며 관련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한국어의 비중을 작게 다루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잠정적으로 아티스쿨이 중단되는데 아티스쿨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볼 필요성을 느낀다.

**한솔 :** 새학기가 다가오니 랑따야나 오폴라바나 널서리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앞선다. 또 이제 널서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부쩍 잘 따라한다.

아티스쿨의 경우 개학을 하면 기존에 오던 날짜와 시간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된다. 또 갑작스럽게 결정된 홈스테이에 대해 아이들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해 클리닉 앞에

팻말을 세워둔 것으로 대체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종옥 :** 나이가 되어 널서리를 떠나 학교를 가는 아이들과 널서리로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도 주로 울동과 함께 색칠, 종이 접기로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라 여전히 아무데나 색칠하고 앞에서 종이 접는 방법을 알려줘도 우리에게 색종이를 접어달라고 내밀지만 조금씩 아이들이 색칠도 종이 접기도 느끼는 것 같아 기쁘다. 아티스쿨에서는 가족, 동물, 색깔 등의 한국어 표현들을 알려줬는데 제법 따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 정신이 없을 때도 있다. 이제 아이들과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 했는데 홈스테이를 하게 되어 사실상 기회가 거의 없어져 아쉬운 마음이 든다.

**태규 :** 개학날이 다가와 5월 초부터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이들이 가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때까지 가르쳐주었던 동요를 모르고 멍하니 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시 가르칠 계획 또는 생각도 안 했다. 아티스쿨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학이 다가온 5월부터 참여인원이 변하고 5월 말부터는 흐지부지 되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산 주 홈스테이와 겹쳐 거의 중지된 거나 마찬가지이다.

# 흘랑따야 이모저모



# | Shwepyitha |



## 5월의 활동

### 아티스쿨

- 아이들과 함께 사찰 주위 환경 정리
- 어버이날 표현 익히기
- 카네이션 접고 부모님께 편지쓰기
- 모자이크(거북이, 달팽이)
- 딱지치기
- 페이스페인팅
- 수건 돌리기

## 개인 피드백

**한솔 :**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로 잘 모이지 않는 때가 많아 집을 물어 물어 찾아가 애들을 데려온 적이 있다. 그렇게 드디어 아이들의 집을 하나 하나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월의 마지막 쉐 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와 딱지를 같이 접고 딱지치기를 하고 수건 돌리기를 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달는 나눔에서 우린 쉐빠따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왜 우린 진작 교실 밖으로 나와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걸 찾지 못했을까?

**애린 :** 아이들과 아티스쿨을 열어 한국어를 함께 배우거나 미술활동을 하지 않고, 뛰어 놀았던 적이 있다. 5월 마지막 주였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술래잡기를 하고, 준비해간 신문지로 딱지도 접었다. 손잡고 밖에 나가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후회가 됐다. 진작부터 이렇게 해봤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에- 일주일에 한 번 사이트를 방문했고, 그러다 보니 아티스쿨에 오는 인원도 아이들도 고정적이지 못했다. 그런 불완전한 상황이 나에게 꽤나 부담스러웠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쓰레기 문제가 두드러졌던 마을이어서 350ppm을 진행하기로 논의했었으나, 이런저런 논의 끝에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 다음달부터 다른 지역으로 홈스테이를 가게 되어 개학 이후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 아쉽다.

**종욱:** 특히 쉼베따에서 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아티스쿨에서는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접는 것도, 편지를 쓰는 것도, 모자이크를 하는 것도 열심히 잘 해줘서 고맷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페이스페인팅이다. 고래, 꽃, 축구공, 거미 등 많은 것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미얀마 국기를 해달라고 했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눈과 가슴에 요구를 해 당황했었다. 그래도 그려주니 마음에 든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했다. 매번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주는 아이들에게 고맙다.

**선진 :** 쉼베따는 아티스쿨을 한다고는 했지만 고정인원이 없고 곧 학기가 시작됨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버티는 느낌이었다. 때문에 랑따야처럼 이벤트성 활동에 치중하기도 했다. 그런데 5월의 마지막 주, 굳이 아티스쿨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시시콜콜한 게임들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걸 몸소 깨달았다. 진즉 아이들 생산에 힘쓰는 것보다 아이들과 부딪치며 알아가는 데 노력할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태규 :** 쉼베따는 아티스쿨하고 환경 미화를 주로 했지만 날씨 탓에 환경 미화를 거의 못 하였고. 아티스쿨도 한국어 수업에서 가면 갈수록 시간을 보내는 위주로 바뀌었다. 사실상 쉼베따에서 마지막 주에는 딱지치기, 수건 돌리기 등 한국 놀이를 가르쳐 주었고, 간단한 걸로도 애들이 즐겨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새로 온 애들도 많았지만, 마지막 주에 와서야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되고, 집이 어디있는지도 알게 되어서 아쉬웠다.

쉐베따 이모저모



# | North Okkalapa |



## 5월의 활동

- 모자이크(거북이, 나비, 고래)
- 카네이션 접기
- 페이스페인팅
- 과일 색칠하기

## 개인 피드백

선전 : 랑따야와 같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생기고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생기며 혼란이 있었다. 이전 모른 애들이 아는 애들보다 많아질 정도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난 아이들 때문에 아쉬움이 많지만 그 와중에도 새로 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온 활동을 다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5월이 되다 보니 자주 느낀 것은 잦은 정전 때문에 팬을 돌릴 수 없는 날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낮잠 자는 일은 여전히 곤혹스럽다.

또한 선생님들의 간식을 받는 것이 항상 부담스러웠는데 '무언가를 받고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우월감'이라는 충고를 듣고 나니, 그냥 감사하게 먹고,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애린 :** 아이들이 졸업해,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거하게 졸업식이라도 열 줄 알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다. 한술언니는 매번 아이들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다. 인사라도 미리 해둘걸- 하는 생각에 아쉽고 섭섭하다. 콘텐츠 소비가 빨라 걱정이 된다. 아이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처음에는 미술 활동이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잔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그 나이 때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피드백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한술 :** 양곤Y널서리가 추가되면서 마 오평라바에 가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뻐하던 아이들이 하나 둘 나오지 않게 시작했다. 어디 아픈가 싶었는데 선생님께 여쭙보니 다섯 살이 되어 학교에 갔다고 한다. 아쉬운 마음에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어 아이들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이름을 불러보지만 학교에 간 듯 싶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져서 좋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가긴 않지만 편안하다.

**태규 :** 개학날이 다가와 5월 초부터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이들이 가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때까지 가르쳐주었던 동요를 모르고 멍하니서 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시 가르칠 계획 또는 생각도 안 했다. 그리고 양곤 Y를 가게 되면서 마 오평라바에 1번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기로 했지만, 귀찮음과 더운 날씨에 평소처럼 3시에 돌아가 미안하고 아쉬움이 들었다.

**종옥 :** 마 오평라바 또한 흘랑따야와 마찬가지로 널서리를 떠나는 아이들과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주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다. 이 곳에서도 주로 색칠과 종이접기로 함께 했다. 색칠도, 종이접기도 여전히 곧잘 따라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기쁘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에 익숙해지고 이름을 부르며 지내던 중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참 크다. 그리고 매번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 며 오플라바 이모저모



# | Yangon YMCA Nursery |



## 5월의 활동

- 모자이크(거북이, 나비, 고래)
- 페이스페인팅
- 과일 색칠하기

## 개인 피드백

**애린:** 휴일을 얻고 싶어 제안했다가 추가된 사이트이다. 마오플라바를 하루 덜 가고, 양곤Y를 갈지 말지도 고민이 많았지만 새로운 환경의 아이들을 만나는 게 비교도 해 볼 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에어컨도 세대나 있고, 화장실의 위생상태도 깨끗하다. 아이가 다른 친구랑 놀다가 팔을 다쳤나 컴플레인을 걸어온 엄마를 본 적이 있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아이를 키우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영어도 많이 쓰고, 인원 수에 비해 선생님도 많다 보니 수업 분위기도 차분하니 좋다. 역시나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남자 아이 두 명은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했다. 축하해 주었지만, 흘랑따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미래는 벌써 정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무력감도 있었다. 교육의 차이, 빈부라는 게 이런 것일까.



**선진 :** 3월에 처음 양곤Y 널서리를 둘러볼 때는 물랐는데 흘랑따야와 마요골라바 널서리에서 3개월 활동을 하고 양곤Y에 와보니 환경의 차이가 여실히 느껴진다. 에어컨도 세 대나 있고, 일찍 온 아이들이 각자 놀고 있을 정도로 장난감이 비교적 많다. 티셔츠에는 손수건이 달려있어 위생적으로 청결하다는 것도 느껴진다. 아이들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이곳 아이들은 뛰지 않는다. 안아주고 장난쳐주면 타 널서리 아이들과 같이 좋아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도 조심스럽다.

‘여기 애들은 말도 잘 듣고 치대지도 않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그때부터 고민이 생겨났다. 예의 바르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이야 나도 좋지만 점점 아이 다움이 사라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부쩍부쩍 개발되는 도시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예쁘게 자랄 것 같은 걱정.

**한솔 :** 랑따야나 오골라바보다 장난감의 수가 훨씬 많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훨씬 깨끗하다. 그치만 환경에 상관 없이 애들은 똑같은 애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날, 옆에 오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던 아이들이 만나지 십분도 채 지나지 않아 책을 읽어달라고 요리조리 손을 잡고 돌아다니고, 내가 장난감을 같이 가지러 가지 않으면 떼를 쓰기도

한다.. 그치만 확실히 우리가 하는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이트 아이들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고 잘 따라 한다.

**태규:** Y 널서리에 들어가고 3주 동안 하면서 흘랑따야 마 오골라바 널서리와 환경의 차이부터를 느꼈다. 일단 놀이 교재부터 다르고, 아이들의 위생상태에서도 차이를 느꼈다. 하지만 역시 흘랑따야, 마 오골라바 아이들과는 달리 아이들이 뛰지를 않고 앵기는 것이 적어서 그런지 서운하고 어색하고 지루함을 조금 느낀다.

**종욱:** 마 오골라바를 줄이고 가게 된 양곤 Y 널서리. 일단 버스로 이동하지 않아 몸도 덜 피곤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좋았다. 이 곳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매번 아이들의 대환영을 받았던 우리가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것부터, 깨끗하고 시원하며 아이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점잖은 모습에 신기했다. 매번 정신 없이 장난을 받아주다가 녹초가 되던 우리에게 이곳은 참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양곤YMCA 널서리 이모저모





# | Atti Club |

매주 토요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 Atti Club - 양곤 YMCA 5층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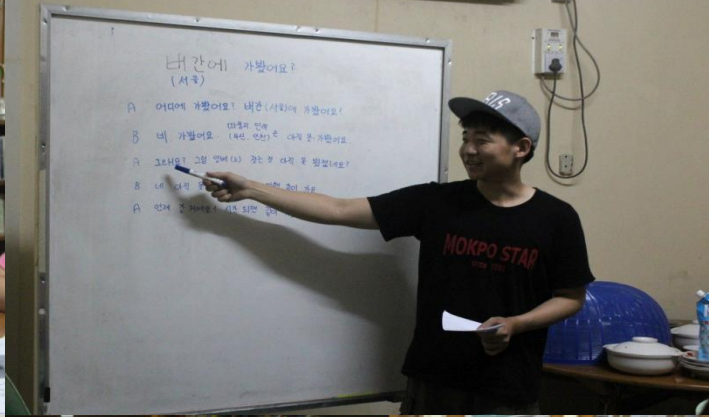


## 5월의 활동

5월에 접어들며 아띠클럽의 고정멤버가 생겼다.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착실한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했다. 기초반은 대화문을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회화반은 '아르바이트', '취업'이라는 주제로 프리토킹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멤버들의 한국어 실력을 가능해보고 미얀마의 청년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청년들의 취업 실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5월의 마지막 아띠클럽인 30일에는 한국가수들에게 관심이 많은 팬인 추이와 보미를 위해 'K-pop 듣기평가'를 실시했다. 'EXO'의 '12월의 기적'이라는 곡의 가사를 받아 쓰고 뜻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보미와 추이 모두 좋아하는 노래의 숨은 의미까지 알게 되어 기뻐했다. 이날은 다음주에 진행할 '한국음식 만들기'의 메뉴를 짜기도 하였다. 떡볶이와 주먹밥 그리고 라면을 준비 중이니 궁금하다면 짜주베 6월호를 기대하시라...

## KOREAN PRODUCT EXPO 2015

5월 23일 토요일은 EPK 시험이 끝난 최고와 태양을 위해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마침 KOREAN PRODUCT EXPO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엑스포로 피크닉을 가기로 결정했다. 엑스포는 '불고기X라더스', 'X가네닭갈비' 등의 브랜드 그리고 떡볶이,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이 있는 FOOD FAIR와 전자기기에서부터 화장품, 농기계 등등이 전시된 엑스포관으로 되어있었다. 남과 여로 나뉘어 남자멤버들은 전자기기 위주로, 여자멤버들은 화장품과 식코너 그리고 좋아하는 한국가수를 구경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엑스포에 꼭 와보고 싶었다는 보미는 마침 함께 가자는 연락을 받고 기뻐했다. 양고니팀에게도 아띠클럽 멤버들이 엑스포에 흥미를 가지고 떡볶이 약속도 지킬 수 있어 뿌듯한 피크닉이 되었다.



## 개인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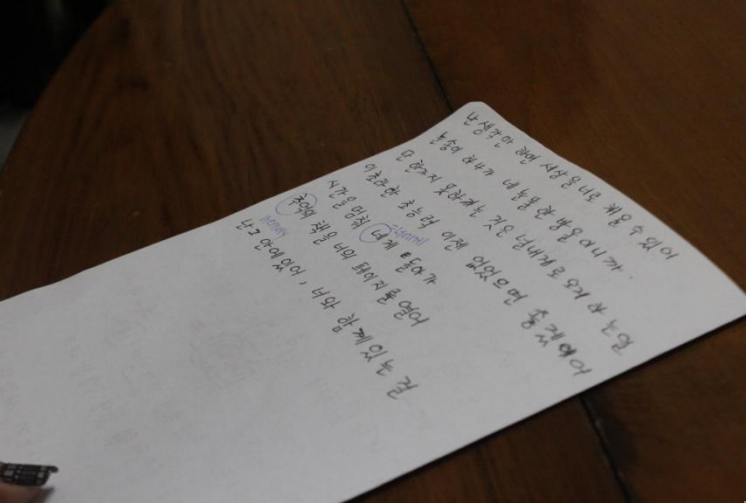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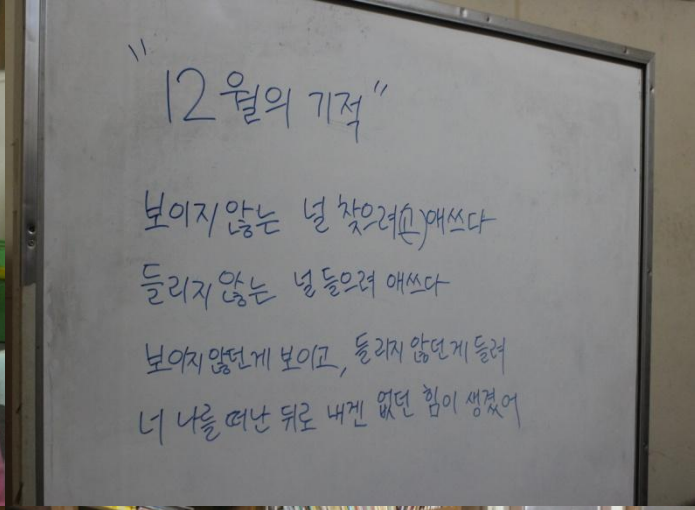
**애린 :** 태양오빠와 최고 오빠가 EPK-고용허가제 시험에 통과했다고 한다.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빠들이 한국에 가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전에 오빠들이 가져온 기출문제집 앞에 함께 지은 이름 '태양' 과 '최고'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는데, 어찌나 마음이 찡하던지-

아띠클럽을 하며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의 모습과 직면한다. 언니들이 좋아하는 K-POP 노래와 가수들, 오빠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노동 현장, 한국 대학 문화와 취업난 등 아띠클럽을 하고 나면 매번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마음에 남는다. 한번은 뽀뽀언니가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높은 지위에 오른 몇몇 한국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가 언니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었나 보다. 언니가 우는데, 내가 다 억울했다. 한국인으로 부끄러웠고, 미안했다. 아띠클럽은 기존의 멤버를 불러 모으는 기간도 길었고, 휴일이 없이 활동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시간이 흐를 수록 더 많은 순간을,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종욱 :** 다이얼로그 수업은 준비도, 진행도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참여하는 멤버들이 한국어를 잘 읽고 이해해서 수준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아띠클럽. 그래서 하게 된 K-pop 받아쓰기는 다이얼로그 수업보다 전달과 이해도 더 잘 되고 무엇보다 멤버들이 즐거워서 뿌듯했다.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5층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세꼬란, 엑스포 견학이 즐거웠던 만큼 좋은 날씨에 밖에서 하는 활동이나 체험을 하는 활동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솔 :** 적은 수이지만 그래도 아띠클럽의 고정 인원이 생겼다. 오빠들의 EPK시험 합격을 같이 축하하고 언니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이 너무 즐겁다. 이 달에는 4월보다는 재미있는 활동들이 꽤 많았다. 마침 양근에서 한국 상품 엑스포가 열려 언니 오빠들과 함께 구경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언니 오빠들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 우리가 배우는 미얀마어 수준의 다이얼로그는 몇번 진행하다가 너무 쉽다는 피드백이 나와 5월의 마지막 주에는 K-pop 받아쓰기를 진행했는데 관심사라 더 집중도가 높기도 했고 평소 노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뜻과 모르는 표현들을 알려줄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드디어 아띠클럽을 이어나갈 방향을 이제 좀 찾은 듯 하다.



**태규 :** 처음에는 수업을 한다기 보다는 시간 때우기를 위해서 다이얼로그를 준비하고 간단한 회화 연습을 하였다. 하지만 세꼬란을 가고 다 같이 EXPO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누나들이 관심 있어 하는 K-pop 받아쓰기, 그리고 한국 요리를 같이 만들어 나눠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나누었고, 한국요리를 만든 것이 마지막 활동이어서 아쉬웠다.

**선진:** 매주 부담스러운 아띠클럽이었는데, 이제야 자리를 찾았다. 월화수목금 아이들을 보다가 청년들을 만나면 미얀마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도 취업'되'는 것이 문제지만 이들에게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현실, 한국어가 좋아 공부를 시작했지만 EPK 고용허가제 시험에 합격 후에도 선발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한국인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현실을 듣는다. 그래도 아띠클럽에서나마 이들이 기쁨과 역울함을 공유할 수 있어 다행이고,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의 아띠클럽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와 감정들을 공유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준비하는 활동에 고마워하는 멤버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매주 이들을 언젠가 한국에서 만나는 상상을 해본다. 남은 아띠클럽의 기회가 적어서 더욱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 우리 친구를 소개합니다!



**조빠이통** (한국이름 : 최고)

1992년생

(홍선진 단원과 동갑이나 반말을 몰라

항상 높임말을 함)

별명 : 미안마 선비

자주하는 말 : 아... 아니고~!(다급)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귀밭이술, 대간

특징 : 웃음을 자꾸 참음, 이 시대의 매너남

EPK고용허가제 시험에 합격함



**포옹뚜레** (한국이름 : 태양)

1992년생

자주하는 말 :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못하는 말 : 못봤겠네요? (모뻏겜데@\$%%&)

특징 : 최고가 안 오면 안 옴

EPK고용허가제 시험에 합격함

**추이문** (한국이름 : 추이)

1991년생

특징 : 건설회사에 다님, 이 시대의 진정한 폼생폼사  
(카메라를 드는 즉시 안경을 벗고 자세가 나옴)

좋아하는 가수 : 엑소가 아니라 카이

자주하는 말 : 카이 좋아~, 너무 좋아~❤



**보미**

1992년생

자주하는 말 : 음 음.

특징 : 회사원, 매우 한국음식을 좋아함

좋아하는 가수 : 동방신기가 아니라 최강창민

이름의 사연 : 최강창민이 나오는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이 '보미'



## 쌩얼보호



## 또또

1988년생  
(28살로 추정)  
스마일의 친구  
특징 : 스마일 오빠  
와 함께 고향이 내려  
간 이후 종적을 감추  
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원들이 미안  
마어를 하면 매우 기  
뻐하였다. 그리워요.  
돌아와줘 ㅠ



## 스마일

1988년생 (28살로 추정)

특징 : 모든 말을 과거형으로 바꿔 말함 ex)만달레이에 7월에 갔었어요.  
3월 첫 모임 이후, 고향에 가있는 바람에 아띠클럽에는 오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두번 씩 전화  
해 우리의 안부를 묻는 친구,  
일주일 스님 체험으로 머리를 깎음, 호주에서 일하고 싶어함  
전화 번호가 매우 여러 개인 듯 함

## 광희

1992년생

분명 미안마어 이름에 어울  
리는 ‘광희’라는 이름을 지어  
줄 때 매우 기뻐하였는데, 첫  
모임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태양과 최고의 말에 의하면,  
한국어 공부도 하지 않고 학  
교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  
다. ㅋㅋ(언제나 기다릴께)



## 뽕뽕

1991년생

특징 : 한국인 (아띠들보다 한국어를  
잘 구사함), 눈물과 정이 많음, 그러나 이시대의 진정한 독설가  
토목 전공,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데 뛰쳐나오고 싶어함  
좋아하는 가수 : 동방신기  
근황 : 동방신기 콘서트로 방콕에 다녀옴

# KOREAN PRODUCT EXPO 이모저모





어른들 말대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자란 걸까. 많고 많은 세상에서 벗어  
나려는 노력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일 순 없는 걸까. 패배할 것이 두려워  
출발선에 서기를 피하고 있는 걸까. 아님 그저 어른이 되는 나를 자꾸만 미루  
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걸까.

불안한 눈빛으로 친구의 연봉을 묻거나 부동산 정보를 뒤적거릴 어저면, 어  
저면 슬플 그날을 한때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 노력했노라 자위할 기억을  
만들고 있는 것 뿐일까. 세상 안으로 성큼 들어서지도 발을 뻗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덮고 있는 지금, 그래도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일까.

자기 안에 수많은 모순과 세상에의 두려움을 한 가득 품고도 영문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기분 좋은 외침은 단지, 단지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기를. 언젠  
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대의 추억을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정말로,  
정말로 그렇기를 바란다.

# INSIDE RAONATTI 02

같은 순간, 같은 얼굴, 같은 웃음소리로 웃는 그들. 그들의 사진을 보면 제법 오래된 가족사진 같기도 하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생활이야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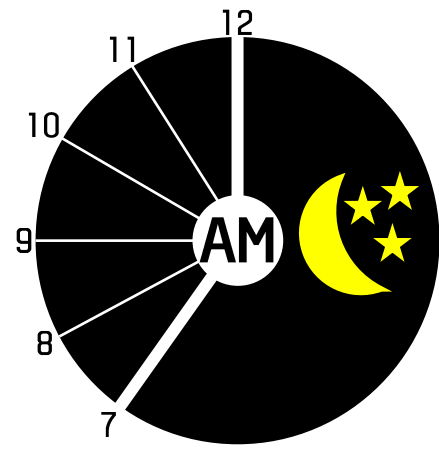


# INSIDE raonatti - 하루일과



## 7:00 AM

- 07:00:00 알람이 울린다.
- 07:00:02 알람을 끈다.
- 07:05:00 알람이 울린다.
- 07:05:02 알람을 끈다.
- 07:10:00 알람이 울린다.
- 07:35 아침식사(하러 나가지만 밥은 오지 않고... 종욱은 씻고 있다)
- 07:50 아침식사
- 07:55 식사를 마치고 내려간다. (종욱은 먹고 있다)



## 8:00 AM

- 08:05 사이트로 출발(하러 나가지만 뽀누&솔리(+런치박스)는 오지 않고...)
- 08:20 방에 있는 솔리를 부른다. (솔리는 이제 세수를 한다)  
솔리는 시간을 끌어본다.(런치박스 OK? 뽀누 OK?)
- 08:30 버스정류장으로 출발! (종욱은 모자를 쓴다)
- 08:40 버스탑승완료 (종욱은 이제 탄다) 버스 출발

## 9:00 AM

- 09:?? 아직 버스에 있다.

## 10:00 AM

- 10:05 라인카로 갈아탄다. (종욱은 버스에서 내린다)
- 10:15 Y널서리를 향해 약 오백보 걷는다. (종욱은 라인카에서 내린다)
- 10:30 선생님&아이들과 인사를 한다. (종욱은 신발을 벗는다)

## 11:00 AM

- 11:00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뽀뽀뽀/울챙이송/텔레비전/페페제)
- 11:10 미술활동을 한다. (애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 11:30 아이들의 점심시간 (아이들 밥을 맨손으로 비벼준다)
- 11:45 우리들의 점심시간 (장시간 먼지에 쌓인 손가락을 닦는다)

\* 하루 일과는 흘랑따야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 12:00 PM

- 12:00 널서리 청소를 돕는다. (한솔은 아가들 밥 먹이기)
- 12:10 아가들 낮잠을 재운다.
- 12:30 우리도 잔다.

## 1:00 PM

- 01:00 아띠스쿨 아이들이 몰려온다.
- 01:30 아띠스쿨 시작

## 2:00 PM

- 02:15 아띠스쿨 아이들을 보내고 널서리로 돌아간다.
- 02:20 아가들 과자봉지를 뜯어준다. (간식시간) + 놀아준다.
- 02:35 댄스타임 AGAIN
- 02:50 아가들을 배웅한다.

## 3: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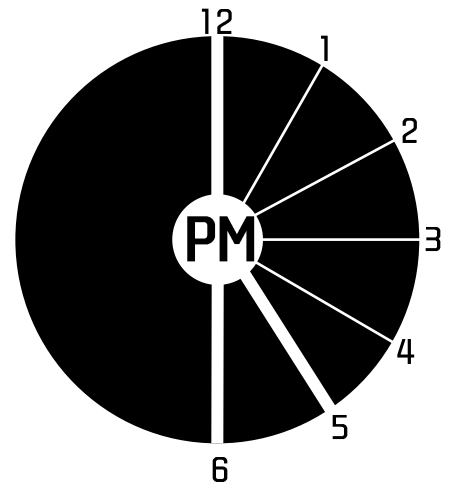
- 03:00 클리닉 차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 03:30 클리닉은 도착했지만 환자가 열 명이 넘는다.
- 03:45 카드게임, 사진 찍기, 나무타기 등등...

## 4:00 PM

- 04:30 클리닉 차 출발

## 5: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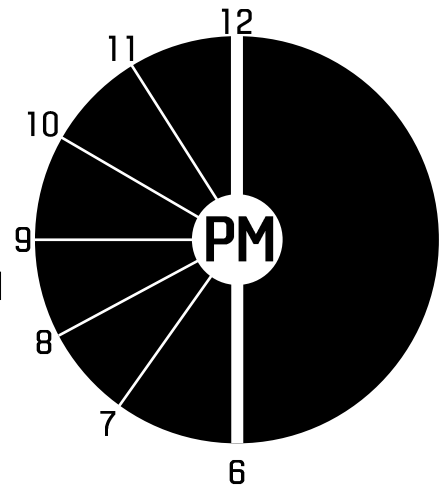
- 05:?? 아직 차 안에 있다.  
클리닉 의사선생님 닥터 락의 집에 도착한다.  
싱긋병 간호사 언니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준다.  
술리는 자고 있는 한솔,애린,선진에게 무차별 베개 폭격을 가한다.  
베개 싸움이 시작 된다. (태규는 잔다/종욱은 바라본다)  
마리꼬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말한다. -> 서로 고자질 한다.



\* 하루 일과는 흘랑따야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 6:00 PM

- 06:20 클리닉 차에서 탈출
- 06:25 저녁밥을 해치움
- 06:35 설거지 (가위바위보) + 당번 아닌 자들은 폭풍샤워



## 7:00 PM

- 07:?? 폭풍샤워 및 자유시간

## 8:00 PM ~ 9:00 PM

- 08:20 (여자방) 달는 나눌 하자고 소리친다.
- 08:21 (남자방) 막내 정태규: 안 들리는 척 한다, 만형 최종옥: 어쩔 줄 모른다.
- 08:22 (여자방)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 08:25 위의 과정을 약 5번 반복한 후, 마침내 여자방에 모인다.
- ~ 다음 날 활동 준비
- 09:59 (모자이크 동물그리기, 신문지에 물감 칠하기, 색칠 활동지 만들기 등 생 수 없이 다양함)  
달는나눌 + 야식타임 (주로 치맥을 즐김)

## 10:00 PM

- 10:00 자유시간(사진 정리, 월간 작성,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고스톱, 카드게임, 등)  
(여자방) 한솔: 배고프다고 떼쓰기 시작 / 선진: 곳곳이 운동함 / 애린: 같이 라면 먹음  
(남자방) 태규: 만화를 본다 / 종옥: 만화 보는 태규를 본다
- 10:30 (여자방) 한솔: 가장 먼저 졸리다고 잠 - "달다" / 선진: 잠이 안 와 드라마(뿌나)를 봄  
애린: 배가 아프다며 똥약을 먹는다  
(남자방) 태규: 만화를 본다 / 종옥: 만화를 보는 태규를 본다

## 11:00 PM

- 11:00 (여자방) 한솔: 잔다 / 선진: 뿌나를 본다 / 애린: 똥을 싣다  
(남자방) 태규: 만화를 본다 / 종옥: 졸려서 눈이 감기지만 만화 보는 태규를 본다
- 11:10 선진: 남자방에 전자사전 충전하러 간다  
(발소리가 들림)  
종옥: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책을 펼치고 읽는 척 한다.



\* 하루 일과는 흘랑따야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 INSIDE raonatti - 결혼식

5월은 결혼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엄마 산드라는 조카의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해주었다. 행복한 신랑과 신부, 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가족들. 가정방문 이후 오랜만에 인사를 전하는 산드라의 친지분들과 함께 그들의 싱그러운 새출발을 축하했다.



## 개인 소감

**애린 :** 전통혼례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여느 결혼식 풍경과 다르지 않게 설레임과 따뜻함이 가득했던 날이었다. 산드라 어머님 께선 한껏 꾸민 우리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다ㅎ. 축의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장 입구에 쌓인 선물들도 새로웠다.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길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고 싶다

**한솔 :** 비가 주룩주룩 오던 날, 우리는 산드라의 조카 결혼식에 초대 받아 인세인 근처의 한 교회에 다녀왔다. 미얀마 전통 결혼식이 아닌 기독교식 결혼식이어서 새로운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3월초 홈비지팅 이후로 산드라의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종욱 :**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미얀마의 결혼식이라 뜻깊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나가는 문에서 신랑, 신부가 하객들 한 명 한 명과 사진을 찍고 보내는 모습. 하객들의 축하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참 아름다웠다. 비는 세차게 내렸지만 그것을 잠시 잊을 만큼 행복한 결혼식의 모습이었다.

**선진 :** 저번에 만났던 가족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모두 예뻐다. 모든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고, 촌스러운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들을 보면서 참 소박하고 귀엽단 생각이 들었다.

**태규 :** 저번에 산드라 집에 방문하고 나서 처음으로 산드라가 초대해준 행사였다. 미얀마 전통 혼례를 기대했었지만, 그냥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부 신랑과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새로웠다.

결혼식 이모저모



# INSIDE raonatti - 솔리's 생일

천방지축 분위기 메이커 동반자 솔리! 지난 5월 12일은 우리가 애정하는 장난꾸러기 솔리의 생일이었다. 극비로 진행된 흘랑따아에서의 깜짝 생일파티 현장을 공개한다!



## 당시 현장 증언! +솔리에게

**종욱 :** 당일 날 알게 되어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활짝 웃으며 기뻐하는 솔리에게 고맙웠어요. 우리를 위해 애쓰는 솔리야! 고맙고, 다시 한번 생일축하해!

**선진 :** 빵누가 케익을 6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더니 역시나 초코파이 케익에 버금가는 미니케익이었어요. 단출했지만 그래도 기뻐해서 뿌듯했고... 생일축하해, 솔리야!

**한솔 :** 바로 옆에서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항상 장난을 치면서도 우릴 먼저 생각해 주는 솔리에게 고맙단 말을 처음으로 했고,

아미스쿨 아이들과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안재모 님은 솔리야, 생일 축하해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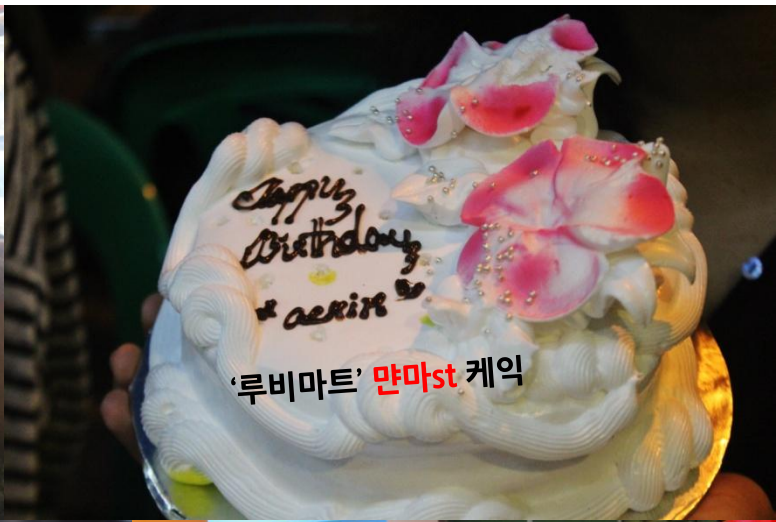
**애린 :** 생일 당일, 아니나 다를까 지각한 솔리에게 무척대고 화를 낼 작정이었는데 데스크 스태프가 오늘이 솔리의 생일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오늘이 생일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사이트까지 묵묵히 따라가는 솔리에게 깜짝 파티를 준비해서 해주었어요. 빵누랑 근처 가게에서 빵사고, 촛불은 덤으로 얻었습니다. 기뻐해주서, 너무너무 고마워 솔리오빠(ㅎ)

**태규 :** 생일 날 아침에 솔리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 했지만 작은 빵으로도 기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 INSIDE raonatti - 애린's 생일



꿈에 나온 새를 안고 진심으로 기뻐함



'루비마트' 만마st 케익



19번가 세꼬랑



함께 축하해준 우리의 친구들

뮤쑈

미뚜

에이프릴

## 5월 24일 일요일 애린단원의 생일

생일선물을 사는 일과 롤링페이퍼를 쓰는 일, 모든 것이 비밀리에 계획되었고 성공적이었다.

루비 마트에서 운명의 새를 만난 이후로 며칠동안 새가 꿈에 나온다는 애린단원의 말을 들은 나머지 단원들은 바로 생일선물로 딱이겠거니 생각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루비마트까지 다녀온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24일 당일 날 까지 생일 선물 사는 일을 미뤄오다가 내놓고 케익을 사야겠다며 한솔 단원과 선진 단원은 당당하게 집을 나섰고 루비 마트까지 열심히 걸어가 일층에서 케익을 사고 꼭대기 층에서 운명의 새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새를 샀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연막작전으로 오는 길에 꽃한다발을 샀다. 그리고 돌아와서 꽃을 건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나 그녀는 '설마 이게 단가?'라고

생각하며 실망하지 않은 척 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19번가로 향했고 태규 단원의 가방에 숨긴 뚱뚱한 새 때문에 평소 굉장히 빨리 걷는 정태규 단원이 맨 뒤에서 걷는 진귀한 풍경을 보았다. (게다가 누르면 소리가 나는 새여서 조심해야만 했다ㅋㅋㅋㅋㅋ) 한 술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케익에 불을 붙이고 축하 노래를 부른 후 우리는 드디어 새를 세상 밖에 내놓았다. 그 순간 애린단원의 표정이란 ㅎㅎ. 우리 뿌듯함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함을 느꼈다.

뒷 테이블의 미얀마 할아버지들도, 옆 테이블의 외국인들도 모두 애린단원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던 행복한 5월 24일이였다.

# INSIDE raonatti - 싱가포르 메디컬 팀



## 쉐베따에서 싱가포르 친구들을 만나다!

원래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할 자리에, 수십명이 넘는 낯선 이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한쪽 쪽방으로 쫓겨나 점심을 먹은 우리는 안그래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려던 참이었다. 그들의 반찬은 닭고기 반찬이 아니겠는가.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예쁜 사람들도, 남자 단원들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도 많았다. 알고보니 그들은 싱가포르 의대에서 봉사 활동을 하러 온 스무명의 대학생들이었으니...

이들은 5인 1조로 한 조를 이뤄 마을을 탐방했다. 건강교육을 하고, 손씻기 교육등을 가정방문을 통해 알려준다고 했다.

사찰학교를 찾아온 아이들과 함께 수건돌리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며 놀았다. 메디컬 팀의 한 청년은 한국 친구가 알려주었다며 술게임을 선보였다. 이에 일가견이 있는 선진단원과 애린단원은 '제대로 된' 술게임을 알려주었다는 후문.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이토록 먼 나라에 와준 그들에게 새삼 고마웠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을 만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 INSIDE raonatti - 엑스포에서 만난 사람들



## 엑스포에서 한국사람들을 만나다!

아띠클럽 사전 답사 차 여자단원들이 미리 엑스포를 방문하였다. 올해가 첫 미얀마 방문이라는 GTEC 청년들과 ‘미얀마의 아름다운 인연’(‘미아연’이라는 단체는 수익의 일부분을 미얀마 사회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고 했다.)이라는 미아연 회장님과 회원들, 올해로 미얀마에 온지 14년이 되신다는 베테랑 한인들까지...

덕분에 단원들은 청포도 맛 쭈쭈바와 설레임, 칸초 등의 과자를 무료로 얻어먹었다는 후문이다. 따로 또 같이 미얀마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있기에 오늘날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한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 따뜻한 한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KOREA PRODUCT EXPO 2015’. 대한민국 파이팅!





*Mr. Butter's butter poem*

## 버터씨의 버터시

길거리의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에 잠기는 감성주의자.  
느끼함은 덤으로 가지고 있는 그가 감성 충만한 메시지를 전한다. | 최종옥단원



### 다르고 같은 이야기

다르다.  
몸도, 마음도  
시작도, 지금도  
바라보는 것도  
바라는 것도. 참 많이 다르다.

같다.  
나도 웃고, 너도 웃는다.  
나도 힘들고, 너도 지친다.  
같은 기억 속 우리는 같다.

나는 너를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잘 모른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독하게 같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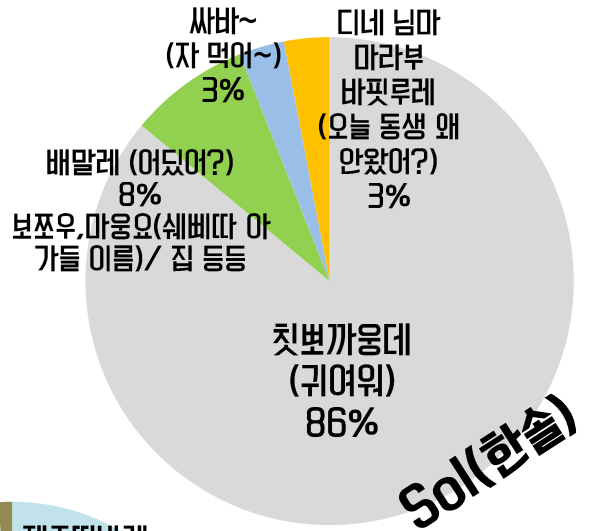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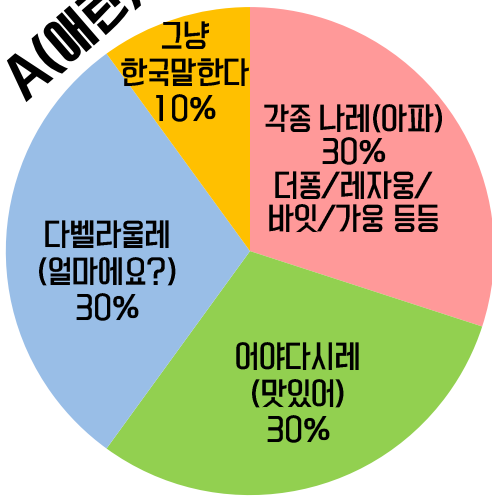
# Drunken Gyu

## 썩썩미안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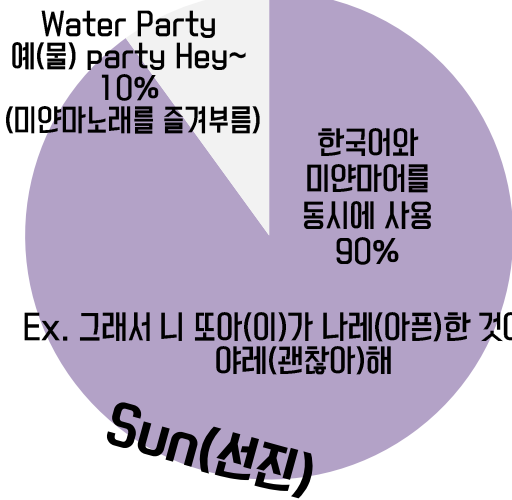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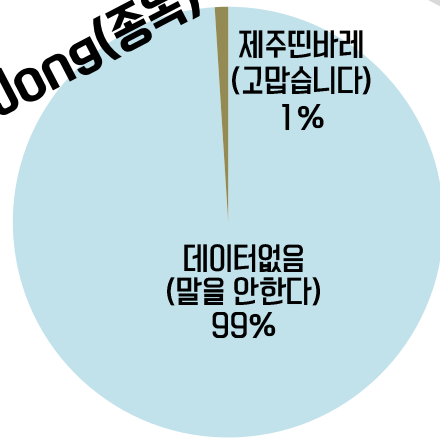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양고니팀 단원들이 각자 자주하는 미안마어를 파헤쳐본다.

**A(애린)**



**Jong(종욱)**



**Kyu(태규)**

팀원들이 모르는 각종 고급 미안마어 구사 100% 그리고 절대 안알려줌

**Sun(선진)**

# 다섯의 이야기

HANSOL AERIN SEONJIN JONGOK TAEGYU



I RAONATTI 13Th YANGON HANSOL I

## #1

오월이 가고 중간평가가 끝이 난 이 시점에서 내 삶을 돌이켜 보면 ‘사는 것 만큼 치열한 것이 없다’라는 동민 간사님의 말이 떠오른다.

항상 쉽게 지루해하고 항상 더 치열한 현장만을 원했던 나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미얀마 생활도, 국제자원활동의 의미까지도 지루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었지만, 난 이곳에서의 “특별한 일상” 덕분에 매일 매일 행복하다.

널서리에서, 마을 골목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노는 일,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 매일 매일 즐거웠고 집에 돌아와선 내일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더 할 생각, 한번 더 웃어줄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다.

이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고 난 내 욕심과 조급함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냄의 치열함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 배우며 순간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내가 참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5개월이 참 짧은 것 같다.



| RAONATTI 13Th YANGON HANSOL |

#2

출국 전 중간평가의 나에게 쓴 편지를 받아 읽은 후, 아차 싶었다.

국내훈련을 거듭하면서 출국 하루 전 날, 나는 그동안 인정하기 힘든 아니 어쩌면 인정하기 싫었을 수많은 내 모습들을 보았고 이 곳에서 나를 인정하길, 변화하길 바랬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생각들을 잃고 내 감정에 이리저리 치우치며 다시 헤매고 있는 듯하다. 내 자신의 문제를 살피기 보다는 남 탓 하기 일쑤였고, 항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와 제일 가까운 우리 다섯 명의 행복을 생각하는 일에 소홀했다.

나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만 보고 “난 행복해” 라고 말하며 이것이 ‘평화와 공존’의 전부라 생각한 것이 부끄러웠다.

남을 이해하고 다름을 경험하러 이 곳에 와서 왜 우리 팀원들에겐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 나와 내 주변, 우리 팀,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공존에 대해 더 생각해 볼 것



| RAONATTI 13Th YANGON SEONJIN |

## # 하나

처음으로 이곳에서 내가 떠나는 사람임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도 가장 확신이 없던 쉼베따에서. 재미를 잡아 놀래키는 짓궂은 아이들이지만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아이다웠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 구슬치기 하는 걸 보며 방학이면 서울 어느 한 컨에서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기던 어린 내가 생각났다. 자라면서 그리워했던 것들을 생각지도 못하게 온 나라, 미얀마에서 보았다.



## #들

출국 전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 한 장에 내가 느껴야 했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지금 나는 버티는 느낌으로 출발하지만, 내일 나는 '잘 살아보기 위해' 떠나.*  
부끄럽지만 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3월부터 말했다. 퇴보하는 것 같아.

이곳에 오기 전, 난 내 인생 최고의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미친 듯 행복했고 나날이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즐거움에 빠져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러던 나는 이곳에서 나의 소신과 적응 사이에서 한참을 갈등했고, 적응을 위해, 내 소신을 버렸다. 그럼에도 난 나를 계속 잘 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내가 억지로 덮은 마음이 무의식 중에 부정적으로 표출되는지도 모르고. 라온아띠가 내 실수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그리고 그 실수로 내가 영 영 되돌아오지 못 하면 어쩌나 해서.

한 구석에 남아있던 개인적 문제라 생각해왔던 고민들이 결국 나를 둘러싼 팀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내 자존심과 신념이 무너진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실망스러웠다. 그게 내게 너무나도 커서 미안함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역시 무서웠다.

한참은 정리해야 했다.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깨달은 것은, **나다워야 한다는 것.** 나답지 못한 모습에 내 마음은 자꾸만 나와는 먼 방향으로 도망쳤다. 동시에 미안마에 온 나의 의미도 찾았다. 나다움을 잃지 말아야 함을 깨닫기 위해 왔다는 것. 이제 다시 내 편지가 일러준 방향으로 가려 한다.

*만일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난 항상 어디서든 잘해오던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었음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즐겁게 살던 사람임을 깨달았으면.*





| RAONATTI 13Th YANGON AERIN |

#1. 몇 개의 문장과 몇 개의 단락으로 정리될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깨달음을 얻었던 3개월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곳에 와 ‘행복’에 대해 배웠다는 것이다. 많은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나라냐’고 다시 묻는다면, 쉬이 대답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과 차, 스마트폰, 더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그걸 소유하려고 한다. 나 또한 ‘취준생’ ‘사망년’이라 불리는 대학교 3학년을 앞두고 많이 고민했다. 어떤 것이 내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남들이 하는걸 따라 쳇바퀴 돌 듯 사는 것은 아닐지-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없었다.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때 라온아띠를 만났고, 나는 이곳에 와 경제적 지표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얀마 사람들은 ‘가진 것에서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지녔다. 그것이 이곳 사람들을 늘 웃음 짓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 양곤Y 스탭이신 텔루아저씨는 우리가 망고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망고 다섯개를 건네주시고, 바부지 아저씨는 항상 아침 식사로 산 빨라따와 이자궤를 나눠주신다. 마 오플라바 선생님들께선 두 점시 한 가득 매번 새로운 간식거리를 나눠주시고, 흘랑따야 선생님들도 언젠가부터 바나나 한 다발을 머쓱하게 손에 쥐어주시곤 한다. 우뎨이 아저씨는 쉼베따에서 돌아오는 길에 파는 튀김을, 솔리랑 뽀누는 반찬이랑 주전부리를 언제고- 나누어 준다. 오고 가는 정성과 마음이 나를 움직인다.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는 이곳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겐 중요하지 않다. 얼마만큼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 내가 이곳에서 배운 행복이다.

사실 나는 항상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가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고 싶다. 그게 비록, 몇 번의 포옹과 뽀뽀, 간지럼 일지라도 말이다.



#2. ‘우리 눈은 지독한 원시’ 라는 문구를 선진언니가 가져온 달력에서 본 적이 있다. 저 멋진 말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오랫동안 기억해 두었는데, 이렇게 쓰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본다. 원시 판정을 받은 눈처럼 안경을 끼지 않고선 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열망하며 살기 마련이다. 나 또한 그랬다.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랐고, 현재가 빨리 지나가 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랬던 나에게 라온아띠가 ‘안경’이 되어주기를 바랬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그래서 포스터 속 문구처럼 매 순간이 뜨거운 날들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때로는 강박처럼 지독하게도 현재를 즐겁게 살아보려, 복학을 하거나 돌아가서의 삶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을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사랑하려 노력했었다.

그런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내 자신이었다. 일어나게 될 갈등과 그로 인해 불편해질 일상이 싫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을 극복하고자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 마음을 배신하고 속였다. 내가 나를 몰라 다른 사람이 참 많이 아팠다. 내가 매번 이리저리 휩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지금 아주 못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내 모습과 마주해 있다. 내가 흔들리던 것들, 그것에서부터 멀찍이 떨어지니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내가 아닌 것 같았다가, 결국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이른다. 3개월을 헛살았나 싶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내가 부정하고자 했던 내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냐는 물음에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나는, 나를 속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 RAONATTI 13Th YANGON JONGOK |

기다렸던 비자트립도 가지 못하고, 중간평가도 6월로 바뀌었지만 5월도 이렇게 저렇게 지냈다. 5월을 되돌아보면 아이들과의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젠 제법 아이들과 친해지고 처음엔 어려웠던 이름도 들리고 익숙해졌다. 서툰 발음이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쳐다보고 웃어주는 아이들이 좋다. 같이 놀다 보면 녹초가 되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는 아이들에게 참 고맙다. 어느새 3달을 살다 보니 이제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라는 느낌이 든다. 뜨겁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날씨, 느리게 혹은 빠르게 가는 버스, 눈과 가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 웃으며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곳이 내가 살고 있는 미얀마라는 곳이다. 여전히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나지만, 나는 이 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던 나. 어느 날 팀원들의 물음에 그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의문이 들었다. 나는 미얀마에 왜 온 걸까? 이것에 대해선 돌아갈 때까지 답을 못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분명한 건 나는 이곳에 여행을 온 것도, 놀러 온 것도 아니라는 것. 하지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고민과 체험 속 쉼과 여유, 나를 수없이 생각하는 예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여행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나에게 줄 것이라 믿는다.

다른 사람들의 같은 이야기. 앞으로도 뜨겁겠지?



I RAONATTI 13Th YANGON TAEGYU I

처음 미얀마에 왔을 때는 이렇게 덥고 지루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두번째 미얀마에 왔을 때는 작년보다 발전되고 빌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정말 빠르게 변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그저 안 됐다' 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갔었다.

그리고 세번째 라온아띠로 와 있는 지금은 미얀마에 대하여 조금 더 알게 되고 흘랑따야, 쉐빠따, 마오플라바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놀고 마을 사람들이 먼저 웃으며 건네는 인사에 작은 것에도 웃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활동이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걷는 법과 작은 것에도 웃고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 산 홈스테이가 끝나면 1달도 안 남게 되는데 좀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싶다.



အေးအေးအေးအေး, ကိုကောင်း!

RaonAttē 13<sup>th</sup> MYANMAR YANGON

၈ ရက်အထိ အိမ်ထဲမှာ နေရမယ့် အကြောင်း

-The End-